

화려한 색깔로 활기찾는 자연

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힘든 겨울을 보낸 지구촌에도 봄이 돌아왔다. 흑백에 묻혀 있던 자연이 화려한 색깔을 드러내며 생기를 내뿜는다. 파라과이강에선 아마존빅토리아 수련이 수면을 뒤덮는 장관을 볼 수 있고 네팔 포카라에선 밤하늘의 수많은 별이 지상의 우주쇼를 연출했다. 미국 캘리포니아 도로변에는 야생화가 만발해 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을 동심으로 들뜨게 만든다. 프랑스에선 화재로 손상된 노트르담 드 파리 대성당 재건에 사용할 230년 된 세실레 참나무를 베는 작업이 한창이다. 여행가라면 가고 싶어 하는 태평양의 갈라파고스 군도에선 갈라파고스 거북의 근황도 볼 수 있다.

글 조보희 기자



스페인 북부 나바라 시의 연못에서 산란기를 맞은 개구리들이 짝짓기하고 있다.
[EPA=연합뉴스]

대만 타이베이시 한 공원에서
시민들이 활짝 핀 벚나무 아래를 거닐고 있다.
[EPA=연합뉴스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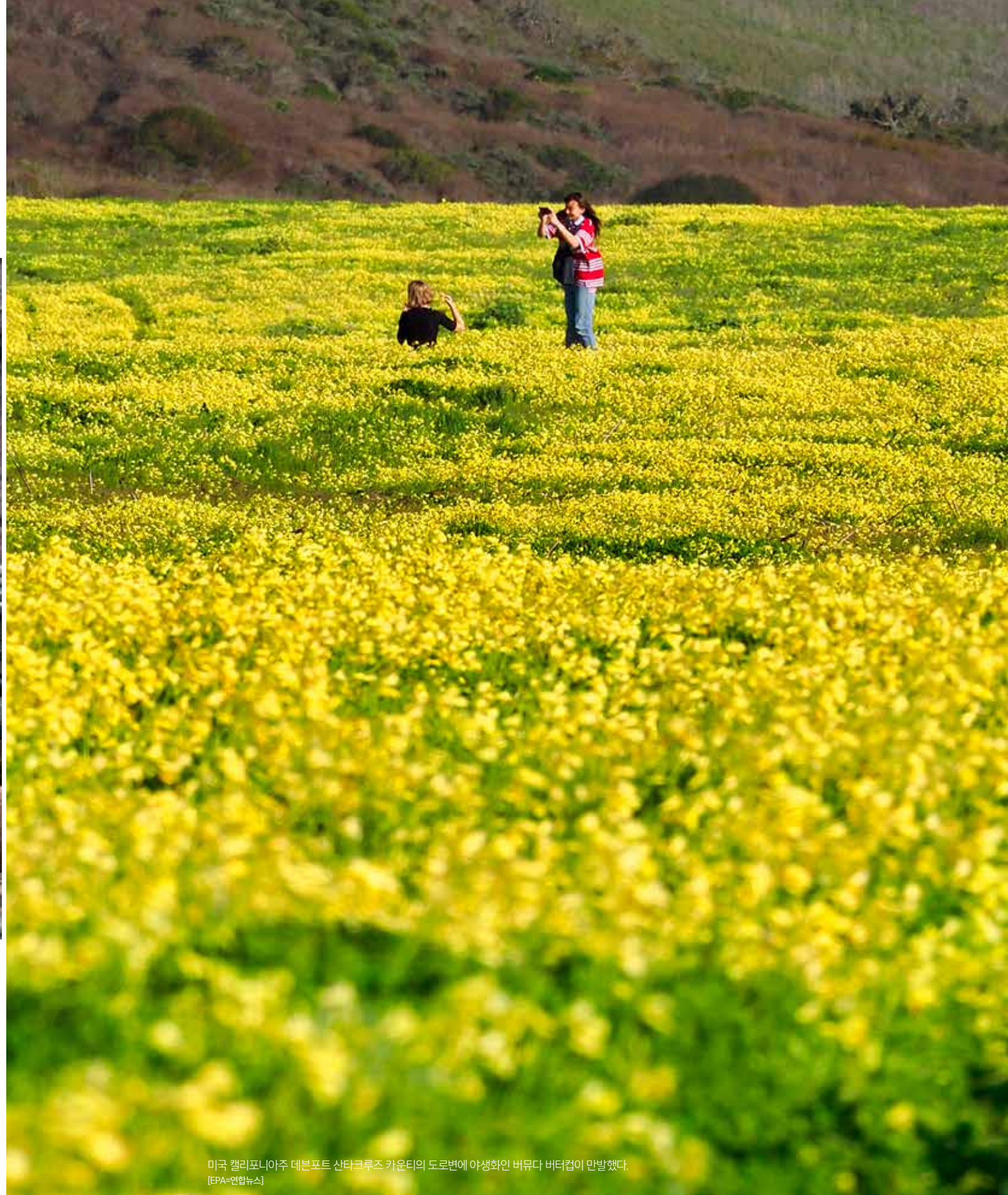
인도 아삼시 나가온 구에 있는 숲에서 애나새가 꽃에 있는 꿀을 빨고 있다.
[EPA=연합뉴스]





에콰도르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갈라파고스 거북들이 산책하고 있다.
이 군도는 해안에서 약 1천km 떨어져 있다.

[EPA=연합뉴스]



미국 캘리포니아주 데븐포트 산타크루즈 카운티의 도로변에 야생화인 버뮤다 버터컵이 만발했다.
[EPA=연합뉴스]



네팔 포카라의 마차푸르산 위에서 찍은 별자리 궤적
[EPA=연합뉴스]



2019년 4월 화재로 피해를 본 프랑스 노트르담 드 파리 대성당 재건에 사용할 230년 된 세실레 참나무 8그루가 벌목되고 있다. 대성당 재건에 사용될 목재는 프랑스 각지에서 조달된다.
[AFP=연합뉴스]



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방의 한 농장 직원들이 판매할 카네이션 다발을 나르고 있다.
[AFP=연합뉴스]

파라과이 피케테 큐(Piquete Cue) 지역 파라과이강을 뒤덮은 아마존빅토리아수련
[AFP=연합뉴스]

